

한 권의 책을 활구 화두로 삼아 볼까?

대행 스님 법어집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내 마음은 금부처' 한글 번역 출간

미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은 대행 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어집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No River to Cross)>와 <내 마음은 금부처(My Heart is a Golden Buddha)>가 나란히 한글로 번역 출간됐다.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국제문화원 옮김, 한마음출판사에서 대행 스님은 지금 당장 접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혜의 세계가 언제나 지금 여기

에 있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으니,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오라고 설한다. 흔히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깨달음과 열반이 있는 피안의 세계로 데려다 주는 뗏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행 스님은 우리가 찾으려는 뗏목이란 없으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조차 원래 없다는 것을 일깨운다.

주제별로 구성된 이 책은 불이법(不二法)에서부터 구체적인 생활속의 공부법

은 물론 금전적인 문제,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에서부터 실질적인 수행의 문제들을 친절하게 설파하고 있다. 로버트 버즈웰(Robert Buswell) UCLA 불교학연구소장은 서문에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세속적인 일조차도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마음을 닦아나갈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행 스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만나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적인 출판사인 위즈덤출판사(Wisdom Publications)는 서평에서 "어디 하나 손색없는 선사로서의 자격을 두루 갖추고 계신 대행 스님은 <No River to Cross>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출발하는 매우 참신한 마음 수행법을 선보이고 있다. 스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무결한 근본 자리인 우리의 '참성품'으로 돌아

가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의 외로 간단하지만, 그 가르침의 깊이는 놀라운 정도로 심오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 마음은 금부처>(한마음국제문화원 번역, 한마음출판사)는 대행 스님의 지혜로운 선(禪)이야기와 법문을 담은 책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을 겸하고 있다. 재미있고 신기한 옛이야기처럼 다가오다 어느새 화두가 되고 선문답이 되어 공허한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법어집이다. 단시간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깊이는 두껍고 난해한 철학서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형식은 단순하고 소박해도 그 선(禪)적 향기가 가슴 속으로 촉촉이 젖어들어 독자도 모르게 자신을 근본으로 회향하게 하는 책이다.

바바라 루크(Barbara Ruch) 폴립비아대

중세일본문화연구소장은 서평에서 "잘막히고 단순하게만 보이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사방으로 꼭 막혀 있는 우리들의 선입견을 예기치 못한 사이에 깨버리면 서,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그 해답을 향해 흘러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대행 스님의 활구(活句) 화두를 통해 일체의 것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대수용(大受用)의 대장부가 되어보자.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서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소소영령하게 응대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김성우 기자

buddhapie5@hanmail.net

'서산 대사 어록' 나와

서산대사어록
거부 스님 역주
운주사 | 2만7000원

<초발심자경문>부터 <치문> <서장> <도서> <절요> <선요>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기신론> <화엄경>에 이르는 조계종 강원의 교재를 주해(註解)를 달아 완간한 거부 스님이 최근 <서산대사어록>(운주사 펴냄)을 펴냈다.

총 4권,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어록은 1794년 4월 8일 정종 대왕이 서문을 짓고 제자인 편양언기 선사(大禪師 清堂彦集) 묘향산 보현사 판각을 번역하고 주(註)를 단 것이다. 이 어록에는 계승을 비롯한 서찰과 기문(記文), 비명(碑銘), 행상(行狀) 등의 심오하고도 주옥같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불자들의 필독서인 <선가귀감>의 저자이기도 한 서산(1520~1604) 대사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해 평양 탈환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거부 스님은 "서산 대사가 제정한 '선(禪)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 말씀'이란 종풍은 선교양종의 통합을 뜻한다"며 "이는 교학을 익힌 다음 참선하는 것이 마땅함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성우 기자

땅끝절 미항사서 희망을...

"화두가 성성하다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었으며 총만 함이었다. 무아일여(無我一如)의 경지에 들어 현실로 다시 돌아오니 일주일의 지난 뒤였다. 노스님들의 경험의 무얼 말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한반도 남쪽의 맨 꼬트머리에 자리 잡은 사찰, 서울에서 이른 아침밥을 먹고 출발해도 저녁 때 맞춰 그곳에 도착하기 쉽지 않은 절, 멋진 달마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남해가 보이는 풍광을 가진 미항사의 주지 금강 스님이 첫 예세이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을 펴냈다.

땅끝마을 미항사의 사계를 아름다운 사진과 맛깔스러운 글로 그려낸 이 책은 폐사에 가까운 외딴 절 미항사를 해마다 찾는 사람이 10만 명을 웃돌며, 연간 토티플스테이 참가자는 5000명이 넘는(2009년 기준) 세상과 호흡하는 곳으로 만들기까지,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포교하는 금강 스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모든 행사에 지역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운 이야기, 학생 수 다섯 명으로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학교를 60명으로 만든 이야기, 산사의 일상에서 마음을 쉬는 토티플스테이 등 미항사의 일상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 머나 먼 산골의 작은 절, 미항사가 어떻게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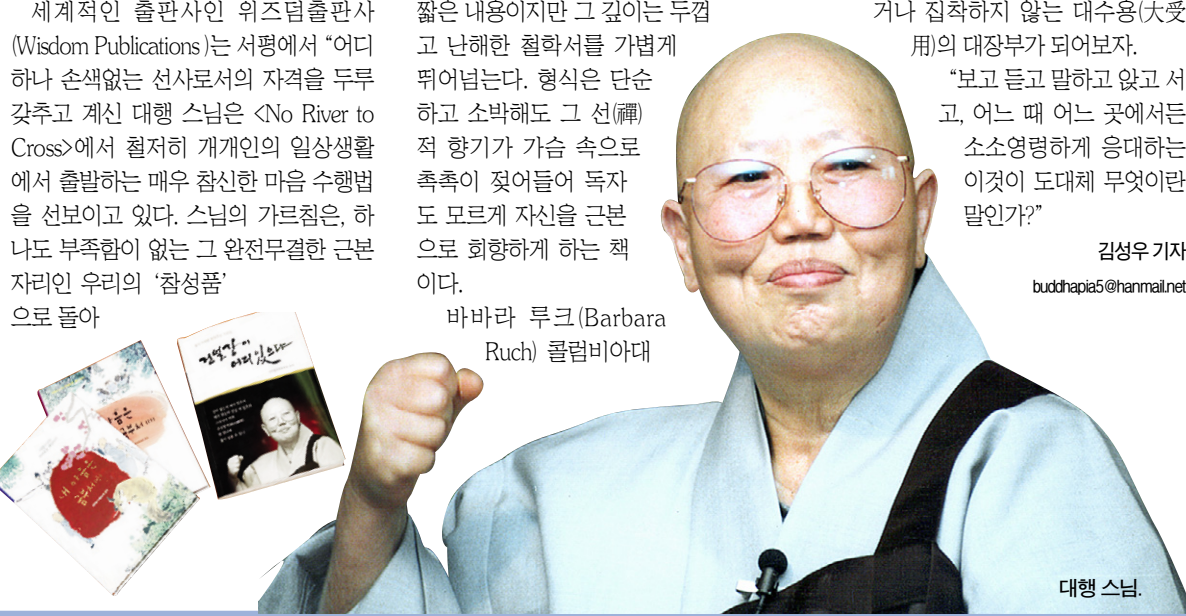
의 주목을 받게 됐을까? 그 중심에는 2000년부터 미항사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금강 스님이 있다. 2000년 겨울, 백양사 운문암 선방에서 유달리 화두 공부에 잘 되어 '이왕 시작한 공부 뿌리를 뽑으리라' 마음먹고 웃기기 몇 점 쟁겨 떠나려고 들른 길에 미항사에 발목이 잡힌 스님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선방으로 삼아 삶속에서 더욱 치열한 정진을 계속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장점을 발견해 내는 역발상을 통해 세상과 호흡해 온 금강 스님은 인기스타 보다는 마음을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워 산사와 화를 열고 누가 찾아오면 마음 편히 스님과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절 문을 활짝 열었다. '날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자로 차를 주고 인성 상담도 해준다'는 소문이 퍼질만큼 세상과 호흡하며 사람들의 온갖 번뇌를 받아준 금강 스님은 사하촌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 각계각층,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아름다운 절로 미항사를 만들었다.

금강 스님은 서문에서 "이 책이 미항사와 인연 닿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 미항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종정스님의 삶에서 실마리 찾아라

혜봉 스님 '종정열전' 펴내

근현대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상징인 종정스님 22인에 대한 전기가 출간됐다.

혜봉 스님(이전 부석암)이 저술한 <종정열전>은 초대 종단 원종의 종정인 회광사선(1862~1933) 스님으로부터 만공월연(1871~1946), 한암종원(1876~1951), 퇴옹성철(1912~1993) 스님 등과 현 종정인 도립법전 스님까지 종정 큰스님들의 전기를 다룬 역사, 삼국시대부터 고려 고종 때(1215년까지) 기록된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과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부터 조선 고종 31년(1894)까지의 고승 197인과 불교인 2명의 행적을 기록한 <동사열전(東師列傳)>의 후속편이라 할만한 책이다.

<종정열전>은 혜봉 스님이 20여 년 전에 집필 계획을 세워 수많은 신문, 법어집, 자료집 등을 섭렵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기록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1999년 발행한 <그 누가 큰 꿈을 깨었나>와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처럼>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새로이 밝혀진 부분을 추가 보완해 도서출판 문화공에서 개정판을 출간한 것.

일제시기부터 현재의 불교사가 녹아 들어가 있는 <종정열전>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현시점에서 충실한 자료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예를 들어, 각 시기에 설립된 종단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일제시대 원종과 임제종의 종정(회광사선, 경운원기) △조선불교 선교양종(환응단원, 동선정의, 해담지의, 용허장호) △조선불교 선종(혜월혜명, 만공월연) △조선불교 조계종(한암종원) △광복후 통합종단까지의 시기(석전정호, 만암종원, 석우보화, 동산혜일) △통합종단 이후 조계종(효봉학눌, 청담순호, 고암상언, 서용성호, 퇴옹성철, 서암홍근, 노천월하, 해암상관, 도립법전)으로 구분된다.

<종정열전>의 또 다른 장점은 불교전반의 이해를 돕는 용어 해설, 관련 사진, 깊이있는 자료를 첨부해 불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 점이다.

종정열전 | 혜봉 스님 지음 | 문화공고 | 상·하권 4만5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법정	문학의 숲
2	석인은 물을 길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행복도 내 자못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절을 가져쳐 절하는 법	청견	북타의 마을
6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7	일곱 번의 직면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8	사는 즐거움	보경	들
9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탄대경	행복한 숲
10	법문 스님의 죽은죽실	법문	진도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한국 선의 정법맥을 이으신 진제 대선사 새법어집

石人是 물을 길고 木女는 꽃을 따네

베스트셀러 인터파크2위 에세이전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주요 5대 일간지 전면 인터뷰 기사
-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무차선대법회' - 한·중·일 3개국 대표 선사들의 상당법어
- 처음으로 밝히는 성철 선사와의 고준한 문답
- 안거에 들어가는 전국 선원의 수행자들에게 수년간 내리신 고준한 상당법어
- 50여 컷의 사진과 禪 용어해설 수록

"심무취사(心無取捨)-대인(大人)은 마음에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한다" _조선일보 "참선 수행으로 지혜 얻으면 출세와 복락은 따라오는 것" _매일경제 "어떤 것이 참나인가?" 라는 의문을 놓지 않으면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 _중앙일보 "참선은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 _동아일보 "참나를 깨달으면 일체중생과 한 몸이 되어 대안력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한 용심(用心)이 나오게 된다" _경향신문

- 진제 대종사가 이처럼 선법을 휘날리지 아니했다면,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이 어찌 불조의 정맥을 이은 종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_원로회의 의장, 종산대종사
- 구구절절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라고 화두를 참구하려는 자비의 말씀이 귀를 때리고 마음을 울린다 _중앙일보 회장, 홍석헌
- 고승들의 선문답 속에는 날카롭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 _STX 회장·전경련 부회장, 강덕수
- '참 나'를 모른채 허둥지둥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깊은 산속에서만 마실 수 있는 신선한 공기와 같은 존재다 _방송인·사진작가, 이상벽

진제 대선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348쪽 / 15,000원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옛 못에서 달을 건진다(古潭瀝月)
향상일로의 고준한 공안법문 81칙
바른 깨달음의 표준을 제시한 참선수행 지침서

돌사람 크게 웃네(石人大笑)
참나를 찾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귀중한 발심 법문집
구입문의 : 해운정사(051.746.2256)

선백문백답
당대 최고의 선지식에 직접 듣는다
실제 참선 수행자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